

2024 자신헌회 세미나 3강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자의식 형성

2024년 5월24일

최종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언어의 전환 - 새 언어, 새 신학

-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
 - 그리스·로마 고전이나 고대인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연구. ‘인간에 관한 학문’
 - 연구자 - 후마니스타(humanista).
 - 파이데이아(paideia)의 이상 - 라틴어 후마니타티스는 고전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윤리 등이 포함하여 고대 학문 부활
 - ‘아드 폰테스’(ad fontes)는 중세 말 유럽 엘리트들이 추구했던 인문주의의 이상의 본질

- 왜 과거에 가치 부여?
 - 고전 언어, 철학, 예술 등 과거의 성과를 모두가 따를만한 모범
 - 과거에 대한 지식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학문과 신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은 수사학, 작문법 중심

인문주의 정의하기

- 중세와 인문주의 관계
 - 중세와 결별하고 고대 지향? 중세의 결실 위에 형성?
 - 중세 교회의 교리나 신학을 부정하는 세속 운동? 보완 운동?
 - 교육 방식인가, 아니면 사상이나 철학인가?
 - 크리스텔러 - 철학 사조 아닌, 인간 존엄에 천착하는 교육 방식
 - 변증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콜라학에 대한 반작용
 - 인간 존재가 기성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이상 추구
 - 스콜라학에 대한 대안 내지 대조 운동

- 인문주의와 스콜라학의 관계
 - 라틴어와 모국어의 관계와 유사
 - 라틴어와 모국어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문학 표현의 대체 양식 기능
 - 스콜라학 권위 구조 포기, 이교 작가들의 가치를 그리스도교 신앙과 동등
 - 칠성사의 완성, 변증의 정점

스콜라주의와의 관계

- 인문주의는 스콜라주의에 대한 반대
 - 논리적, 정합성 해답 추구 비판, 언어 역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텍스트 재검토
 - 전통적인 권위 지닌 성서 번역 및 그 해석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변증법 - 자신의 정당성 입증 논쟁술, 수사학 - 대의 추구, 공공 이익 창출 목적의 화해의 기술
 - 인쇄기 - 인문주의자들의 사상을 엘리트 집단을 넘어 대중 확산 기회

- 문헌비평의 선구자, 로렌조 발라
 - 언어는 문명의 기초, 고전 라틴어는 언어적 완성도의 극치
 - 라틴어 지식과 비평은 유럽 지식 사회에 큰 반향
 - 교황제의 근간이 되는 문서인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장」이 위조 증명
 - 「기증장」의 라틴어 스타일과 어휘와 내용 조사. 논쟁적이고 수사적인 성격을 지닌 당대 최고의 역사비평 논문
 -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서인 성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역까지 비판
 - 최초의 르네상스적 성서학자 - 1435년부터 1435년까지 불가타역을 신약성서 헬라이어 원문과 비교
 - 성서를 공격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성 제거, 완전성 함양

그리스도교 인문주의

- ‘그리스도교 인문주의’ 가능한 용어인가?
 - 크리스텔러: '저술의 전부나 일부에서 종교적 또는 신학적 문제를 명확히 논한 학자'
 - 아퀴나스와 루터 불포함, 에라스무스, 토머스 모어, 멜란히톤, 칼뱅 포함
 - 공동 가치 - '언어학과 성서 번역'

- 요하네스 로이힐린 (1455-1522)
 - 히브리어 학자 - 언어 습득 동기로 참된 교회로서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 확인
 - 『히브리어 기초』 (De rudimentis hebraicis)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집 출간
 - 카발라(Kabbalah)로 알려진 유대 신비주의 접함
 - 지배적인 위치를 고수하던 스콜라주의에 대한 인문주의의 투쟁
 - 스콜라학에 대한 반기, 신비주의 - 이성을 통한 신의 체험이 아닌 '신과의 신비적 합일'

 - 유럽 내에 만연한 반유대주의 반대 - 그는 중세의 시대착오적 선동에 맞서는 상징성
 - 조카 멜란히톤 - 독일 프로테스탄트의 지지자와 후원자 이미지
 - 1868년 세워진 독일의 "보름스의 루터 기념비" - 발도,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멜란히톤, 프리드리히, 필립, 로이힐린



iStock
Credit: klug-photo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 (c.1453–c.1536)

- 프랑스 인문주의자, 초대 교회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시도
 - 성서 본문 자체에 대해 관심
 - 1509년 5개의 라틴어 텍스트를 편집한 『오중 시편』 (Quincuplex Psalterium)
 - “모든 연구가 어느 정도의 즐거움과 유익을 주지만, 신성한 진리에 대한 연구만이 즐거움과 유익만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약속한다. 영혼의 참된 양식이며, 그로부터 인간의 다른 모든 배움을 넘어서는 빛이 비친다”.
 -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이 법은 영원한 삶의 안내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심의 여지없이 불필요하다”.
 - 그의 성서 해석,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에게 영향

- Sola gratia, sola fide, sola Deo gloria 원형
 - 이 발견이 곧 가톨릭 교리를 거부, 단절은 아님. 그럼에도 가톨릭 교회와 충돌
 - 정통성에 대한 공격 - 루터교인이라는 혐의 (1520)
 -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 모(Meaux)로 이동. 기욤 파렐 만남.
 - 연도, 연옥, 동정녀에 대한 기도 비판, 성서 읽고 토론 강조. 가톨릭과 결별 안 함.
 - 1523년 파리 대학, 르페브르를 ‘루터교 이단’ 비난
 - 1530년 12월 앤트워프에서 칼뱅 조우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1466-1536)

- 인문주의의 왕자

- 고전 중심의 인문주의를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로 급속도로 빠르게 전환
- 종교개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
- 동시대 누구도 갖지 못했던 유명세, 하나의 현상
-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마르틴 루터가 부화'
- 원문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번역 성서의 한계 인식

“라틴어에는 단지 몇 개의 작은 시냇물과 진흙 웅덩이만 있는 반면, 그리스어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순수한 샘과 강이 있다.”

- 큰 전환점, 1499년 잉글랜드 여행 - 콜렛과 토머스 모어

- 콜렛 - 성서 본문을 그리스어 원문의 문법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

“앞으로 저는 성서를 마주하고 남은 인생을 모두 성서에 쓸 생각입니다. 확실히 3년 전, 저는 바울의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더 계속할 생각이었지만 모종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어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3년 가까이 저는 그리스어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1516년 그리스어 신약성서 (Novum Instrumentum) 초판 출간
- 불가타역보다 더 나은 고전 라틴어를 소개
- 전통 종교와는 물론, 그 종교를 갱신하려는 개혁가들과도 거리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

- 가톨릭 교회와 성서번역의 신화
 - 가톨릭 교회가 성서번역을 금지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 아님
 - 스페인 내에서 히브리어 연구 및 성서 번역이 긍정적으로 수용
 - 1492년 스페인 재정복전쟁인 레콩키스타 마무리, 무슬림 추방, 유대인 추방
 - 스페인 성서학의 수준 제고 - 추기경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Francisco Jiménez de Cisneros, 1436-1517)

- 콤플루텐세 다중언어 성서(Complutensian Polyglot Bible)
 - 최초의 인쇄된 다중언어 성서
 - 원본 히브리어와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 본문,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 구약 전체 불가타 번역본, 타르굼 온켈로스 (Targum Onkelos)로 알려진 구약 다섯 권의 책과 그 본문의 라틴어 번역본 및 주석, 히브리어 및 아람어 사전, 히브리어 문법, 그리스어 사전 등이 포함
 - 1520년 교황 레오10세의 허가 받고 배포.

콤폴루텐세 다중언어 성서 서문

"언어에는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아무리 완전하게 언어를 번역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 사실 하늘의 지혜의 숨겨진 깊은 의미들이 그대로 표현되거나 불쑥 튀어나오지 않는 언어나 문자 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학문적인 번역가는 이 중 일부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서의 전문은 필연적으로 원문 이외의 어떤 출처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숭고한 진리들로 가득 차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라틴어 필사본에 다양성이 있거나 (우리는 필사자들의 무지와 태만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 히에로니무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 우리에게 권고하듯이, 성서의 원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본문의 정확성에 비추어 구약성서의 책의 진위를 살피고 그리스 사본에 비추어볼 때 신약성서의 진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서학자들이 성서의 원본 자체를 가까이 두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흐르는 물의 맨 샘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서의 원본 언어들인 인쇄하고, 번역본을 첨부하여 성하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먼저 신약성서를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인쇄하고, 그 언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그리스어 표현을 어휘를 함께 인쇄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약성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구약성서 전체의 히브리어와 칼데아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 성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보잘것없는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잠잠했던 성서 연구가 마침내 되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성하로부터 출판을 허락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하의 축복을 가장 간절히 간청합니다."

종교개혁과 언어로의 전환

- 유럽의 재그리스도교화(rerooting Christianity)
 - 16세기 초반 스페인의 인문주의는 다른 유럽 지역 못지 않게 활발
 - 스페인 인문주의의 후예들이 16세기 후반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가톨릭 내부 개혁 선도

- 양면성
 - 무슬림들에 대한 추방과 강제 개종 정책 실행.
 - 파키스탄계 영국인 타리크 알리가 쓴 『석류나무 그늘』 (Shadows of the Pomegranate Tree)

“당신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그늘을 드리웠던 나무를 도끼로 찍어 버렸소. 그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아마, 하지만 어느 정도일까요? 백년? 이백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발육 부전의 문명은 파멸하고 말 거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추월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잘려진 이 나무가 이 반도의 미래라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책에 불을 지르거나 적대자를 고문하거나 이단자를 불태우는 사람은 결코 기초가 안정된 집을 지을 수 없소. 교회의 저주가 이 반도를 망치게 하고 말거요.”

종교개혁과의 상관성

- 독일 역사가 베른트 뮐러(Bernd Moeller)
 - ‘인문주의가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없었을 것’
 - 루터보다 앞선 세대의 인문주의자들인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요한 로이힐린,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
 - 종교개혁 진행에 우호적이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
 - 다음 세대 인문주의자들인 멜란히톤, 츠빙글리, 칼뱅 등은 프로테스탄트 전면
 - 세대 간의 온도 차이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을 연관시키는 것은 인문주의에 대한 오해
 - 인문주의는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띠기 보다는, 엘리트 세계의 지적 유행이며, 제도권 내의 교육 과정

- 초기 종교개혁가들 대부분이 인문주의자들의 세례
 - 고전 언어와 성서번역에 대한 관심은 이미 루터 전에 존재
 - 인문주의가 중세와의 연결성 속에서 나온 것처럼 종교개혁 역시도 중세와의 연결성
 - 인문주의가 그리 인간성에 대한 혁명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종교개혁도 인간 해방의 운동 아님.
 -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의 한계는, 곧 이은 종교개혁의 한계.
 - 주의에서 배태된 종교개혁은 곧 유럽의 자국 중심주의, 더 나아가 유럽중심주의의 시각을 강화. 자기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신학 강화

중보의 매개 - 성인과 연옥

- 사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 그리스도가 희망, 중세 내내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이 일반적.
 - 하지만 그리스도는 너무 멀다고 느끼고, 보다 인간적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느낌.
 - 성인승매를 촉진, 성인들은 신 앞에서 신자들을 변호하고 기적 행할 수 있는 자들.
 - 성인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불명확, 다만 명백하게 탁월한 기독교인들이 기적이거나 다른 신적 증거들에 의해 그들의 신앙이 확증될 경우 성인이 될 수 있음.
 - 성인승매가 중세말 가톨릭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됨.

- 중세 기독교에 던져진 질문: 사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 12, 3세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들이 진화
 - 1200년경까지는 선택은 오직 천국과 지옥 뿐.
 - 어느 시점에 모든 사람이 즉시 구원받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다양한 사고들이 유입되기 시작. 즉, 사후 일정한 기간의 정화(purification)의 기간을 거쳐 천국에 간다는 개념.
 - 속인에 대한 종교적 개념의 변화에 기인.
 -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속인들은 자동적으로 심판 받고, 오직 수도사, 수녀, 성인들만 천국을 채울 것이라는 인식. 하지만 1300년에 이르러 이러한 인식의 변화시작.
 - 속인의 종교성-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혼한 속인들의 구원 가능성까지 인정.
 - 연옥(Purgatory)는 제3의 대안으로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형태로서 등장.



연옥 교리의 진화

-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트렌트 공의회(1215-1515) 사이에 정의의 진화
 - 1254년 교황 이노센트4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논의.
 - 1274년 라틴기독교와 동방기독교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서 연옥이 나타나 비잔틴 황제 마이클 8세에게 제출됨(리용 공의회).
 - 1437년에도 피렌체 공의회에서 재천명됨.

- 전통의 종교(Traditional Religion), 대중의 종교(Popular Religion)
 - 대중들의 삶 속에 먼저 광범위하게 퍼진 개념들이 제도 교회가 수용
 - 전통 형성의 주체로서 교회의 관념. ‘기독교’라고 정체화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의를 유효하게 하는 힘, 정의를 만들고 추인, 결정하는 총체적 힘이 교회에 있음을 선포.

- 교회의 권세가 내포하는 갈등의 핵심 - 사제의 권능은 어디까지인가?
 -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이 낳은 것 - 사제와 속인의 분리, 사제의 신성화 낳음.
 - 1215년에 이르러 사제의 관념이 발전하여 초인적인 사제상 구현.
 - 죄의 사면을 통제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
 - 만약 사제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재현하고 그의 권능을 실현한다면 (특히 성체성사에서) 사제를 실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 신품성사 자체가 하나의 화체(사제를 신성한 몸으로 만드는)가 아닌가?
 - 정통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 그들은 사제를 왕보다 위, 천사 아래의 신분 강조.

천국행의 또 다른 도우미 - 면벌부

- 칠성사만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중세인들의 구원과 심판의 문제
 - 영혼의 구원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다 안전한 구원의 길을 담보하는 종교적 이정표 제시 필요.
 - 면벌부는 전통의 종교, 대중의 종교를 나타내는 극적인 예. 칠성사에 포함되지 않는 성사의 엄수로 충족할 수 없는 구원의 요구에, 대중들의 필요에 대한 교회의 수용이라는 측면 - 면벌의 시행과 이론적 정립은 대중 종교의 집단 심성의 표현. 시작은 교황에서, 발전은 대중의 열망에서, 쌍방향의 관점

- 십자군과 면벌부
 - 고해신부가 부과한 참회고행 없이 보속(satisfaction) 할 수 있는 것 - 면벌증서
 - 초기에는 금전 거래 아닌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에게 수여. 참회고행에 버금가는 행위인 예루살렘 성지순례나 십자군 원정 등 어려운 일에만 발부
 - 우르반 2세의 면벌부 - 원시적 형태, 면벌부 핵심인 '공로의 보고' 개념 없다.
 - 12세기 <롤랑의 노래>에 '전쟁에서 죽는 자들은 '신성한 순교자들'이며, '가장 높은 천국에 앉게 될 것' 선포. 초기 사상은 가장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통행권.

- 십자군 이후 면벌부의 관념 변화
 - 엄격한 참회의 면제 강조하는 *relaxatione, remissione*에서 면벌 수여하는 교회의 관용을 강조하는 *indulgentia*로 용어 정착. 십자군 뿐 아니라 점차로 라틴 기독교에 유익이 되는 모든 행위에 면벌부 발급.

면벌부의 진화 - 공로의 보고

- 대중에서 대학으로 - 학문적 논의
 - 롬바르드의 <전거집>, 그라티안의 <교령집> 면벌부의 유익과 수여조건 세분화.
 - 신학자나 교회법학자 모두 참회고행 대체할 대체제 필요성 공감.
 - 13세기 초 파리 대학의 총장 크레모나의 프라에포시티누스는 면벌부가 ‘어떤 반대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 교회의 보편적인 전통’이라고 천명.

- 성가대장 피에르(d.1179)
 - ‘연옥’이라는 명사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짐.
 - 면벌부 조건 정확하게 제시 “면벌부는 (1)교회의 권위, (2) 성도의 교통, (3) 참회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세 조건이 갖춰질 때 수여.”
 - 면벌부 수여권위 - 마태복음 16:18 사도계승, 교황과 주교만이 면벌부 수여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대수도원장 면벌부 발급 권한 중단)
 - 중세의 참회규정서는 죄에 따라 1년, 3년, 7년 금식토록 참회고행 규정.
 - 중범죄는 일생동안의 참회로 충족 불가.
 - 피에르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순교자의 고난을 통해 쌓인 교회의 잉여의 공로가 대도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지불 가능하다고 봄.

- 공로의 보고(Treasury of Merits)
 - 1343년 교황 클레멘트 6세가 공로의 보고 인정하면서 면벌부 이론 역사적 정점

면벌부의 진화 -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 공로의 보고 이후 폭발적인 성장
 - 면벌부 남용의 직접 책임은 교황에게, 면벌교리는 대중들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발전.
 - 오남용의 단초 -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매매.

- 망자들을 위한 면벌부 신학적 수용은 15세기부터.
 - 연옥 사상의 교리화와 궤를 같이 함.
 - 민중들 사이의 민간 신앙, 이를 종교적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면벌수사들의 행태, 재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교회의 암묵적인 용인 등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
 -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면벌부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죽은 영혼에게까지 확대

- 중세인들의 종교 심성 속에서 본 면벌부 교리
 - 죽음과 심판은 실제적인 고민 - 이노센트3세 ‘인간존재의 비참함에 대하여’
 - 교회가 구원의 길로 제시한 성사 외에 안전하고 완전한 내세로의 여행의 자구책.
 - 표면 뒤에 있는 본질적인 것 - 중세 가톨릭 구원관의 한계 (전도서9:1)
 - 천국의 여정에서 ‘성사’와 ‘전통’이라는 권위 안내자로 배치. 구원의 가능성 높이는 ‘확률의 종교’ - 면벌부는 이런 종교적 심성 잘 반영하는 제도로 탄생, 확장.
 - 중세인들의 불안을 매개로 자라는 중세 종교의 전형. 중세 신학의 ‘불안한 고리’

중세 가톨릭 신앙의 본질

- 구원의 여정길을 고안하고 인도하는 핵심 - 교회
 - 가톨릭의 교회론 -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1302년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 “지극한 성스러움 *Unam sanctam*”
 - “우리가 믿고 붙잡고 고백할 신앙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 교회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단순하게 고백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나 죄 용서가 없다.”

-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로 결정화된 것
 - 중세 교회가 교황절대군주제로 등장하면서 부과된 종교 교리의 종합
 - 위로부터 부과된 종교 - 교회의 개인에 대한 지배기제의 강화
 - 교회의 교리 및 신앙적인 타협과 타락의 시작
 -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수용, 타협
 - 라테란 공의회의 결과는 성공이자 타락의 시작

-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돌아보는 개혁의 본질
 - 교리의 강화인가? 실천적도덕의 개혁인가?
 - 위로부터의 개혁 (Reform in Head) vs. 아래로부터의 개혁 (Reform in Members)